

# “무료 이모티콘 받으세요”

### 전북도, 투어패스 캐릭터 활용한 이모티콘 개발 14개 시군 대표적 이미지 형상화한 스토리 담아

전북도가 '토달 관광' 활성화와 젊은 세대를 겨냥한 마케팅 변화의 일환으로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에 '전라북도 토달관광' 채널을 개설하는 한편, 투어패스 이모티콘 16종을 제작·출시한다.

도에 따르면, 카카오톡 '전라북도 토달관광' 채널을 신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5일에는 전북투어패스 캐릭터 이모티콘을 출시하고, 2만 5천명에게 선착순으로 무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가 이번에 출시한 이모티콘은 전주비빔밥을 먹고 있는 패스몽, 춘천이와 이몽룡으로 변신한 투어몽·패스몽, 진안 홍삼을 먹고 힘이 붙은 투어몽, 고창 청보리밭에서 보리피리

를 볼며 여흥을 즐기는 토리몽 등 전북 14개 시군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쉽게 연상할 수 있게 제작됐다.

카카오톡은 2010년 첫 서비스 이후 2018년 기준 국내 점유율 94.4%(앱 분석업체 와이즈앱 2018년 6월 발표)로 국민 모바일메신저로 불리고 있으며, 카카오톡 이모티콘의 경우 월 평균 무려 20억건이 발송되는 등 연령대와 성별에 상관없이 소비되고 과생 상품과 광고 등 확장성이 매우 높은 새로운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도는 이번 카카오톡 채널 개설과 이모티콘 출시 등 에스엔에스(SNS)를 활용한 선도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 전북에 대한 젊고 친근한 이미지 구축

과 젊은 층의 관심 유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를 계기로 향후 소셜미디어 등 젊은 층의 눈높이와 최근의 트렌드에 맞는 관광 마케팅 전략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투어패스 캐릭터를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 등 캐릭터 자체의 대중화에도 더욱 힘을 기울인다.

황철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투어패스 캐릭터인 투어몽·패스몽·토리몽을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출시하였다”면서, “투어패스 캐릭터를 활용하여 앞으로 전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및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어패스 캐릭터 이모티콘은 카카오톡에서 '전라북도 토달관광' 채널을 추가하면, 25일 오후 2시부터 2만 5천명 선착순으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김진성 기자



UN 아시아태평양지역 지속가능개발목표 심포지엄 반기문(가운데) 전 UN 사무총장 및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 각국 참여 대표자들이 21일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19 UN 아시아-태평양지역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심포지엄 개막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 전북도, 취약계층 보호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전북도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이 취약한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4만5018명에게 보건용 마스크(KF94)를 1인당 18매씩 보급하여, 저소득층의 야외활동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1104개소와 경로당 6720개소에 공기청정기를 지난해에 지원하였고, 올해는 노인복지시설 226개소, 지역아동센터 247개소 등 총 579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여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건강 보호에 노

력하고 있다. 도는 미세먼지로부터 저소득층 및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에도 미세먼지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형보 도 복지여성보건의장은 “마스크 보급 및 공기청정기 지원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임실N치즈' 세계 속에 '우뚛'

### 임실군, 추진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임실군이 임실치즈식품클러스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기업과 머리를 맞췄다.

군은 21일 치즈테마파크 지정관찰실에서 임실치즈식품클러스터 1단계와 2단계 성과 및 3단계(2021년~2025년) 추진방향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관내 목장형유가공업체 및 식품기업을 비롯한 임실치즈&식품연구소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토론회는 동부권 특별회계 연장에 따라 임실치즈식품클러스터육성사업 3단계 추진을 위한 그동안의 사업성

과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진행됐다.

임실치즈식품클러스터육성사업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사업비 213억 원을 들여 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판매장, 홍보체험관, 임실치즈 2공장 건립 등을 추진해 왔다.

임실군 대표브랜드인 '임실N치즈'가 6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브랜드 가치가 상승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군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치즈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다양한 전략이 수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실=진홍영기자

토론회에 참석한 이원석 참봉은 마을대표는 “임실군은 한국치즈의 발상지로 치즈산업의 중심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임실군을 대표할 수 있는 치즈를 개발하여 목장형 유가공업체를 활용한 공장별 대표 숙성치즈 개발 및 육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심민 군수는 “치즈산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 3단계 치즈식품클러스터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도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치즈 및 낙농산업의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기자

## 자치인재원, 맞춤형 교육으로 '평화의 힘' 키운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재민)은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과정'을 운영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4급 이하 공무원 3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교육은 관문점 선언의 의미와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특강, 통일 정책 설명, 북한이탈주민 특강, 통일·안보 현장체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남북교류협력에서의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정책기

획위, 통일부, 통일교육원과 협업해 기획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과정'은 다음과 같다.

정책기획위원회 김용현 위원(동국대 교수)의 '평화번영의 관문점 선언' 특강을 통해 북한의 현실을 이해하고 동북아 정치 정세를 파악함으로써 더욱 실질적인 한반도 정책을 준비하도록 지원한다.

통일부는 통일교육원과 함께 '국제정세와 평화 통일 환경'을 주제로 격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 한반도 미래의

건설 비전 등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 정립을 돕는다.

현장경험으로는 임진각과 북한 황해도의 산천과 주거, 사람들의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오두산 통일전망대 등 경기도 파주시 일원 통일·안보 현장 등이 예정돼 있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화경제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교육을 준비했다”라며, “평화통일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고해 가시적인 국정운영 성과 창출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진성기자

## 시내버스 이용부터 관광지 입장까지 한방에!

### 전북투어패스, 충전식 교통형 개발... 터머니 결제기능 추가

전북도는 교통카드를 연계한 전북투어패스 터머니교통형을 신규 개발하여 전북을 찾는 여행객에게 또 하나의 편리한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투어패스 교통형은 시내버스 무료이용 또는 주차장 31개소 2시간 무료주차할 수 있는 일회 사용 패스였다.

새로 제작한 터머니 교통형은 일정 금액을 적립해 놓고 여행기간 동안 적립금액만큼 자유롭게 결제해 이용할 수 있으며, 여행 이후에도 원하는 만큼 적립하여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전북도는 이번 전북투어패스 터머니 교통형 발매를 기념하여 미술사 이은결이 추천하는 전북투어패스 홍보영상을 온라인을 통해 소개한다.

이번 영상은 올해로 3년차인 전북투어패스의 브랜드와 혜택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의도로 제작했으며, 생생한 타이포그래피와 화려한 컴퓨터그래픽을 절묘하게 융화시켜 전북투어패스 인지도 높이는 데 큰 성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은결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미술과 투어패스 이용은 관광객들에



전북도가 교통카드를 연계한 전북투어패스 터머니교통형을 신규 개발하여 전북을 찾는 여행객에게 또 하나의 편리한 혜택을 제공한다.

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다는 점에서 많은 공감점이 있다는 공감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했다.

이 홍보영상은 전북투어패스 공식 에스엔에스(홈페이지, 유튜브 등), 개인 유튜브, 전라북도 전경관 등 각종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진성기자

황철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미술사 이은결이 추천하는 전북투어패스의 많은 혜택을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누리기를 바라며, 전북투어패스가 관광객들이 찾는 필수 여행상품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성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는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에서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